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월 5일(일) 제1523호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1월 4~5일, 11~12일 '2025 선교헌금 작성' 선교헌금 작성서, 온라인 작성서, 전화 참여

온누리의 새해는 올해도 변함없이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그 첫 걸음은 '2025 선교헌금 작성'이다. 1월 4~5일과 11~12일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예배에서 2025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할 때는 '자동이체(CMS)'나 '봉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 및 해지는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

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 연장된다. 자동이체 날짜는 매월 25일이다. 봉투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선교헌금작성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온누리교회는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몽골 선한이웃교회, 캄보디아 Acts29 프놈펜교회 등을 세웠고, 전방개척 지역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지구촌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모리타니아 아동 영양 증진 사업,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위생 화장실 및 급수 시설 설치 등을 했다.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말라위 ECD 교육 센터, 이음한국어교실, 니카라과 기독교 학교 강당 등도 건축했다. 전 세계 200개 국 크리스천

5천3백여 명이 참가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도 앞장서 섬겼다.

지난해 온누리교회는 선교헌금 120억 원(12,023,988,530)을 사용했다. 이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59.8%), 선교 사역비(17.7%), 기관 지원(8.5%), 시설 운영비(9.7%), 행정운영비(4.3%) 등에 쓰였다. 올해 작성하는 '2025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 61%(78억), 선교 사역비 17%(21억), 기관 지원 9%(11억), 시설 운영비 9%(11억), 행정운영비 4%(5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관련 기사 4면).

2025년 선교사 간증집 <함께 걷다>도 출간됐다.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사역하며 겪은 은혜와 감동이 생생히 담겨있다. 1월 4~5일 주일 예배 후 배포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새 힘 얻으리!

1월 6~11일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2025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가 '새 힘 얻으리'를 주제로 시작된다. 1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에서 신년 새벽기도회를 실시간 중계한다.

2025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에서는 1월 6일(월) '날개치며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사 40:26-31), 7일(화) '푸른 초장에 눕혀진 양처럼' (시편 23편), 8일(수)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함 3:17-19), 9일(목)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시 68:13, 19-35), 10일(금) '사냥꾼의 밧에서 풀려난 새처럼' (시편 124편), 11일(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말 4:1-6)를 주제로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월 13~17일 '2025 목회사관학교'

2025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오는 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용은길 28)에서 열린다.

전임교역자 목회사관학교는 1월 13~15일, 파트교역자 목회사관학교는 1월 16~17일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04명이 참석해서 비전과 영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5 목회사관학교에서는 개회예배, 소그룹 나눔, 비전교회 소개, 사역 발표, 미래 비전 토크쇼, 기도회,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개회예배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온누리교회 리더십'을 주제로 설교하고, 2000선교, 사회선교, 예배, 양육, 국제부, 회복, 가정, 대학청년, 차세대, 여성, 전도, 장애인 등 사역본부별 주제 발표도 한다.

목회사관학교는 2003년부터 시작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축제다. 국내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과 목회 철학,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쁨을 공유하며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 홍하영 기자

새해에도 '공동체성경읽기'

유튜브 채널,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새해에도 '공동체성경읽기'가 이어진다. 공동체성경읽기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와 공동체는 매일 지정 유튜브 '365 성경읽기' 채널(www.youtube.com/@every365bible)에 업로드되는 '우리말 성경으로 신구약 함께 읽기'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영상은 연1독(매일 15~20분 분량), 연2독(매일 30~40분 분량) 영상 중 원하는 진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는 공동체별로 '공동체성경읽기'를 홍보하고, 매일 성경읽기 링크를 공지할 수 있는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면 된다. 연1독방, 연2독방을 나눠서 운영해도 좋다.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후에는 공동체 총무나 순장, 정해진 사역자가 매일 자정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성경을 읽은 성도들은 공유된 링크가 담긴 메시지에 공감표시를 하거나 짧은 나눔을 통해 서로 독려하며 성경읽기를 이어가면 좋다. 성경읽기 진도표는 1월 중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동체성경읽기는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와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으로도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39

2025 Acts29 비전 컨퍼런스

1월 10일 금요일 서빙고 두란노홀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2025 상반기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1월 10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해외비전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와 협력위원 50여 명이 참석한다.

2025 비전 컨퍼런스에서는 찬양, 전체모임, 점심식사, 비전교회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온누리교회의 영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해외 목회의 어려움 등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다.

/ 홍하영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일본의 현대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쓴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당시 일본 당국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당국은 일본인들만 박해하고 배교시킨 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배교시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교사들을 먼저 배교시켜야 자국민들이 복음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 페레이라가 고문 속에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보고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자 두 명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 됩니다. 먼저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외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시험과 배교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결혼 대상자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호소하는 기도를 여러 곳에서 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시 10:1).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시 44:23~24).

엄청난 상실과 고난을 경험했던 구약의 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뵈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도무지 만나 뵈 수 없구나”(욥 23:8~9).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고 숨어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느끼는 실망이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충격입니다. 크리스천 작가 필립 안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를 비롯해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라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없기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셨던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마다
제한하시고 감추실 수밖에 없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15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심판받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정반대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고 그밖에 다른 누구도 없다”고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15절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은 현재 상황입니다. 15절은 이방 민족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

숨어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14~17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 14절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심으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14절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지만, 이 과정을 통해 14절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계심으로 자신을 더 나타내시고, 더 영광 받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제한하시고 감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 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숨기셨습니다. 그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 정도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해서 그분의 영광 앞에 경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절규하는 유에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제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만 나타나셔도 유은 침묵했습니다. <욥기> 전반부에서는 유이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침묵 하시는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유이 침묵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만 잠시 말씀하셔도 인간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 임재를 다 나타내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모두 알려 주시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는 지극히 일부분만 알려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계획의 과정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이 숨으신 까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었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열 번이상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할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처럼 하나님이 숨어계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까닭은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하려고 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되시려고 숨으시는 것입니다. 숨바꼭질의 기쁨은 못 찾는데 잊지 않고 적당한 때 찾는데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숨어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위기는 “나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위치를 드러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숨어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새번역에서는 ‘숨어서 보신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늘 발견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상을 택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택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숨어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숨어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서 숨어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이원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큐티할 때 가끔 생 각나는 분이 있다. 학창시절, 교회학교 고등부 때 우리 반을 담당하며 분반 공부를 해 주셨 던 선생님이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온화하셨 던 중년의 집사님으로 직장도 꽤 안정적인 회 사에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몇 년 뒤 우연히 그 집사님이 ‘다미 선교회’에 심취 해 그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참 떠들 썩한 사건이 있고 난 뒤 그 집사님 소식은 끊 어지고 말았다.

주변에서 있을 법한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 된 에피소드이다. 다미 선교회의 ‘다미’가 ‘ 다가올 미래’를 말하는데, 세상과 괴리된 천 국에 대한 왜곡된 소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집단으로 숨어 버리거나 같은 신념을 가진 자들의 분리된 극 단적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기도 한다. 때때로 뉴스나 신문에 이러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행태가 나오기도 한다.

신앙과 세상이 분리된 형태의 삶을 ‘이원론 적인 삶’이라고 한다. 크리스천은 종말론적인 삶을 지향한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 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삶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회개와 믿음, 칭의, 그리고

성화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가 가 야 할 하나님 나라는 돌아갈 본향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하나님 백성의 궁극 적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나 이원론은 종말론적인 지향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영적인 소망이 앞선 나머지 세 상의 삶이 부정되거나 배격되는 부작용을 낳 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도피처를 갈망하는 생각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원론은 초대교

달을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막는다고 한다. 따라서 영혼은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부 터 해방되기를 갈망한다고 했다. 플라톤 사상 에 영향을 받은 성 어거스틴은 영원의 영적 영역과 시간의 물질적 영역 사이의 분리를 믿 었고,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것이고, 육체의 고향은 일시적이라 했다. 이러한 이원론은 현 실을 근원적으로 분리된 두 범주, 곧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된다. 이원론은 성경 해석을 왜곡시키고, 하나 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한다. 세상에서 의 삶을 세속주의에 권위를 넘기면서 무의식 적으로 그 세속의 권위 아래 살게 되는 모순 을 낳게 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지 금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 되기를 염원하고 기도해야 한다. 나의 삶 가운 데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 망하는 우리는 현실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적 인 세계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다양한 방면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적용하는 노력과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주일의 거룩 함이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 게 역사하도록 진리 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 의 청지기로써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섬 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성대 장로
(온누리세계관학교,
동대문중앙공동체)

“주일의 거룩함이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회 신앙에 영향을 미친 그리스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스 철학 전통에서 가장 중요 한 인물 중 하나인 플라톤은 이원론을 가장 중심적인 사상으로 두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이돈〉에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 해 말한다. 인간 안의 두 세계에서 영혼은 신 성하고 불변하지만, 육신은 가변하고 지성적 이지 못하고 잡다하기에 영혼의 감옥이라고 주장한다. 육신은 영혼을 더럽히며 신성을 깨

나누게 된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거룩한 교회 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세속적인 삶에서의 행동에는 별다른 이해와 통찰(insight)이 없는 분리된 영역으로 여기며 ‘삶의 파편화’가 일 어난다.

혼란스러운 세상과 어수선한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나라’만 궁극적인 운명으로 간 주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특별기고

자연재해와 악과 고통의 문제

20년 전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발생 한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 도, 심지어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해안까 지 휩쓸었다. 역대 가장 치명적이었던 이 쓰나 미는 수십 개의 마을을 파괴하고 20만 명 이 상의 사망자를 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새 로운 4부작 시리즈 〈쓰나미: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이 사건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비난할 사람이 있다. 하지만 파도, 기상 현상, 번개로 인한 화 재로 일어난 참사라면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 까? 보험 회사들은 자연재해를 “신의 행위”라 고 부르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비 난의 대상을 찾아야 했다. 300년 전 리스본 대 지진 이후 볼테르는 신의 부재를 비난했다. 이 교도들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신들을 어르 고자 했다. 구약 성경에는 욥의 비난이 나온 다. 이처럼 자연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인간은 언제나 창조물과 창조주의 선하심을 찾기 위 해 씨름했다.

2004년 대재앙이 발생한 이후 몇 주 동안 척 콜슨은 “왜?”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라던 스탈린의 생각은 틀 렸습니다. 지난달 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고통 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도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는 통계 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 다. 이 재앙은 전 세계에 행동을 촉발했고, 많 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 절망에 빠 진 사람 중 한 명이 〈뉴욕 타임스〉의 데이비드 브룩스입니다. 그는 새해 첫날 칼럼에서 전 세 계가 보인 관대함이 놀랍다면서 이러한 반응 이 ‘우리가 심연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 감싸는 안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했습 니다. 그가 언급한 ‘심연’이란 낭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자연은 보 살피 주는 존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라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12월 말의 사건은 그 모든 우수한 기 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일 뿐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 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살았던 근 대 이전의 사람들과 달리 브룩스는 성경적 신 앙에서 위안을 얻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브룩 스는 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신비하지 만 활동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자

연의 도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브룩스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유를 모르는 우리 도 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룩스의 절망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B. 하 트는 〈윌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우리가 사 는 세상은 ‘태고의 재앙(타락)이 낳은 기나긴 우울한 여파’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재 앙의 결과로 우리는 깨지고 상처 입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과 무관한 권세 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속박 되어 쇠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질병과 죽음에서도 타락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고난, 부활을 통해 타락한 본성의 고통으로부터 피조물을 심판하고 구원하셨습니다. 피조 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날을 고대하며 신을 하고 있습니다(〈로마서〉 8장).

하트는 그때까지 우리는 브룩스와 다른 사

람들처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죽음과 낭비, 살아있는 영혼을 산산조 각내는 어리석은 우연의 힘을 미워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물론 믿기 어 렵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 음이 완전히 입증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을 붙잡고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복 음이 불리일으키는 선행과 자비의 행위야말로 절망의 심연에 빠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척 콜슨이 이 말을 한 이후 일어난 일 중 하 나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소 망을 강조한다. 우리는 창조주에게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티모시 패직(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신학자, 역사신학 박사)

원문: breakpoint(20241217)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우리 모두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시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선교에 헌신하는 한 해

올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이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달려왔다. 선교가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자 비전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가 한결 같이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선교헌금’이다. 성도들이 봉헌한 선교헌금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1월 4~5일, 11~12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2025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이 뜻 깊은 행사를 앞두고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에게 온누리교회 선교와 특징, 새해 선교 방향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해 선교 열매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수선하고, 마음 아픈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나라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는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구촌 기독교 축제’라고 할 수 있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에서 온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 선교사, 정치인, 기업가,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주제에 걸맞게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제4차 로잔대회를 3년 동안 준비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 선교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온누리교회 선교 역량이 확장했고, 더 많은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늘 다양한 선교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선교사 27명을 파송했고,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물을 공급하고,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안산M센터에서는 ‘이음한국어교실’을 열어 중도 입국 외국인 초등학교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음한국어교실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에게 먼저 문을 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 이름대로 한국인과 외국인들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선교에 대한 성도님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선교에 동참하는 아웃리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아웃리치에는 9천여 명의 성도님이 참여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사역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선교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와 선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비전이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2천 1만 비전’, ‘Acts29’, ‘예수바보행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누리교회 선교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강점입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를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접 선교에 나서기보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사역하다 보니 성도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이 선교에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동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9천여 명의 성도가 아웃리치를 떠나고, 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성도가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본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성도들이 선교를 알고,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000선교본부는 성도님들이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매년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간증이 담긴 간증집을 내고, 새벽마다 선교지 영상을 만들고, 선교지에서 보내는 기도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님이 이끄셨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이 계속 이어지도록 더 많은 성도님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써 갈 새해 선교 역사도 기대됩니다. 2025년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과 주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 오셨고, 사용하셨는지를 온 누리와 나눌 것입니다.

우선 선교사역 최전방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감사와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온누리 선교대회’를 개최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지 이야기를 듣고, 선교 방향에 대해 토론하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 강국이었던 서구가 세속화하면서 선교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많은 지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이룬 지역 교회들에게 선교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누리교회에 선교와 목회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해외의 많은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가 온누리교회를 찾을 거로 예상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비타민C(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과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HKI교단 전략모임 등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지난 40년의 선교 역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사회입니다. 이주민과 난민사역의 중요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전방개척지역(전 세계 가운데 복음화율 10% 미만으로 아직 복음의 영향력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일도 해나갈 일입니다. 더불어 새해 온누리교회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선포하신 ‘촉매선교’를 이뤄갈 것입니다.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선교의 주인공들이 세워지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선교적 삶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몇 명의 선교사나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비전을 품고,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삶과 선교가 나뉘지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선교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지역과 종족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30억 명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역을 위해 헌금하고, 선교지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선교지와 선교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열 것이다”(계 5:5)

〈계시록〉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저 우연이거나 사람들을 통해 이뤄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뤄진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비하셨다(롬 1:18).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그때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리기 전까지 아무도 그 인을 뿔 수 없고, 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계 5:2).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그 인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셨다(계 6:1).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떨어지면서 전쟁과 자연재해, 인재로 인한 기근과 참혹한 사망 등 우리가 겪는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다섯째 인이 떨어지자 순교자들의 탄원이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죄악이 더욱 가득 차고, 순교의 피가 계속 흐른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큰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된다(계 6:16~17).

주는 또한 땅에서도 일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영광스러운 주님은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모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계 1:16~3:22). 결론은 말씀을 듣고 승리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의 세력이 땅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 근원인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천사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내쫓겼기 때문이다(계 12:7~8).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세상 권력(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어린 양을 흉내 낸 거짓 예언자(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성도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도 당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계 13:10).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환난은 누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인지를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계심을 알게 한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이어지는 일곱 나팔 및 일곱 쟁반의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부터 이집트 사람에게만 부여된 것처럼,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분명히 알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계 9:20~21; 계 16:9, 11).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증인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다(계 11:3). 그러나 사람들은 두 선지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뿐이다(계 11:10). 이처럼 많은 사람이 악의 편에 서서 음란과 사치와 살인에 빠지므로 세상은 큰 창녀 또는 바벨론이라 불린다(계 17:1~5). 그러나 화려한 바벨론은 자기 편인 짐승에 의해 먼저 파멸을 당하고(계 17:16), 그 이후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로 심판하신다(계 18:8). 유다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유다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시온 산에서 14만4천 용사와 함께 계실 것이며(계 14:1), 흰말을 타고 나타나셔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라들을 치고, 쇠지팡이로 다스리실 것

이다(계 19:11, 16). 흰 보좌에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계 20:11~15).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계 20:14),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이미 불 못에 던져져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계 20:10).

마지막 심판으로 땅이 정결하게 된 이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계 22:20).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외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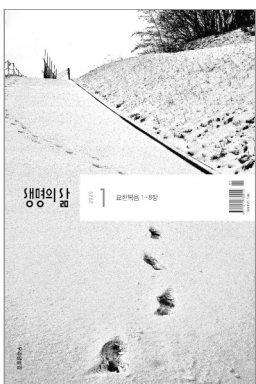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1월 6일~12일
〈요한복음〉 2:1~4:26



목상포인트 1: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혼인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첫 번째 표적에 나타난 예수님 사역의 의미와 성전 청결

기사에 나타난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어머니가 알리자,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패한 성전을 보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죽과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신다.

목상포인트 2: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모세 시대에 노뿔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듯,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이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장대에 달린 노뿔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한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용서와 심판의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기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목상포인트 3: 예수님은 차별을 넘어 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보신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예수님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하신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 상

종하지 않았기에 여자는 예수님의 행동에 반문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 가신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에 여자는 그 물을 얻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고, 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 교훈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신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마음과 육체를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회복하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한 세례 요한처럼,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도록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동생을 위해서!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생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동생이 준비하는 이 시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동생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과 말과 행동으로 동생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동생에게 큰 변화와 축복을 가져올 거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wisdom7@onnuri.org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 기관 시무예배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 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CGN,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서원, 두란노국제선교회,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누리M미션, Acts29비전빌리지, 에셀선교회, 경배와찬양)이 지난 1월 2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25 시무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간사, 협력기관 임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 시무예배는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 소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전하는 한 해,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한 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18~21)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그스도인들은



이재훈 위임목사가 '2025 시무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며 “2025년 온누리교회와 모든 협력 기관이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협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정 팀장(NGO 더멋진세상 홍보팀)은 “NGO 더멋진세상은 올해 ‘더 멋진 마을에 꽃이 피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라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요셉청년부, 1월 4일부터 ‘토요일 4부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요셉청년부가 1월 4일(토)부터 예배 이름을 ‘토요일 4부예배’로 전환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토요일 4부예배’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이후 성인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했던 젊은

부부들과 45세 이상 청년들을 초대한다.

최대홍 목사(요셉청년부 담당)는 “요셉공동체 토요일 4부예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예배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GN 20주년 특집 신년 기획 콘텐츠 공개

‘글로벌 토크쇼’ 1월 5일 기독 OTT ‘풍당’, TV에서

CGN 20주년 특집 신년 기획 콘텐츠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글로벌 토크쇼’ (이하 글로벌 토크쇼)를 1월 5일(일) 기독 OTT ‘풍당’과 CGN TV 채널(오전 10시 30분), 유튜브(오전 10시)에서 공개한다.

글로벌 토크쇼는 CGN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내다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CGN은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전진

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지사(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에서는 현지 맞춤형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토크쇼에서는 CGN 해외 지사와 각 지역을 연결하고, 사역과 선교 현황을 살피면서 비전을 공유한다. 글로벌 토크쇼 진행은 아나운서 손범수, 개그우먼 김효진, 안드레아 전도사(바울로부터 출연)가 한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난민촌 급수 시설 설치

NGO 더멋진세상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서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남수단 난민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로 운영되는 전동 급수 시설을 설치했다.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다. 이번 사업으로 하루 난민 3천여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난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도 했다. 더불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식수위원회를 발족하고, 스스로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했다. 급수 시설을 6개월 동안 운영한 다음 지역사회에 이양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과 KOICA는 2022년 이보아마을, 2023년 친이마을, 2024년 칼리마을에 급수 시설을 설치했다. 지난 3년 동안 난민과 주민 약 4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76기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7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월 25일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 010-5352-6298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10월까지 6개 반 운영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말부터 10월까지 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수원 저녁반, 부천 주간반을 운영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2월 9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2025 예수제자학교(JDS)는 서빙고와 양재 주간반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서빙고와 양재, 수원 저녁반 목요일 오후 7시 30

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부천 주간반은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문의:

서빙고 주간반: 010-9287-8773

서빙고 저녁반: 010-5240-9700

양재 주간반: 010-4994-3602

양재 저녁반: 010-6201-9115

수원 저녁반: 010-7565-6330

부천 주간반: 010-5040-3368

두란노 재정특강 참가자 모집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두란노서원 블레싱홀

크리스천 가정의 재무관리를 도와주는 두란노 재정특강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두란노서원(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65길 38) 1층 블레싱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duranno.com/biblecollege)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 재정특강은 두란노결혼예비학교 후속 프로그램이다. 결혼예비학교 수료생 및 결혼 이후 가정

재무관리를 점검받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재정성향분석(MFTI)을 통해 서로의 경제성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원리를 배운다.

김의수 센터장(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재무설계사)이 ‘크리스천 가정의 재무관리’, ‘개인별 재무원칙 및 경제관 확인하기’, ‘가정 재무관리 시스템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새해에는 성경 1독 합시다!”

CGN과 함께 일-일 통독

CGN이 ‘성경 1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CGN과 함께 일-일 통독’ (이하 일-일 통독)이 그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8시, 매주 일요일에는 오전 6시 30분에 CGN TV 채널에서 방영한다. 기독 OTT ‘풍당’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일 통독’은 1년 동안 성경을 1독을 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15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 성경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한다. ‘성경통독 이벤트’도 한다. 일-일 통독 콘텐츠를 시청한 기간(1, 6, 12개월)에 따라 이벤트에 응모하면 주침을 통해 선물(아이팟, 독서대, 기프트콘 등)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나 QR 코드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도 도와드립니다!”

서빙고 전도콜센터 안내데스크 운영

서빙고온누리교회 전도콜센터에서 ‘전도 상담 부스’를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홍보관 앞에서 운영한다. 전도 상담을 받고 싶거나 전도 요청을 원하는 성도들은 전도 상담 부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전도콜센터는 전도 방법을 모르거나 전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대신해 훈련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이다.

문의: 02-3215-3377

1월 화요성령집회 ‘Maranath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본당

1월 화요성령집회가 ‘Maranatha!’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7일 최대홍 목사 ‘

사랑으로 바라보라’ (벧후 3:8~14), 14일 Guest ‘깨어 준비하라’ (마 24:36~44), 21일 최성민 목사 ‘소망으로 인내하라’ (약 5:7~11), 28일 이서진 목사 ‘믿음으로 충성하라’ (눅 12:35~48)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illegible]

결혼·광고

■ **결혼**

1월 11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김일호, 류필본(온누리교회)의 아들 김택민(온누리교회)
 안가현(전주향기교회)의 딸 양주희(온누리교회)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김종율, 신연희(새에덴교회)의 아들 김준호(온누리교회)
 황철원, 김미선(잠실제일교회)의 딸 황영현(온누리교회)

■ **광고**

CMN 시온타임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물품: 5-10세용 영어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아동
 운동화(사이즈 190-230), 아이들의 공책, 필기도구(사
 용감 없는 물품, 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수건(사용
 감 없는 타월)
 접수: 양재 목회지원실(강의동 1층)
 문의: 임정윤 간사(02-570-7469)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4-5일, 11-12일 선교헌금 작성

| 선교헌금 작성 방법 |

1. 현장 작성(2025년 1월 4~5일, 11~12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성서 작성

2. 온라인 작성(상시 작성 가능) : 선교헌금작성 QR코드

3. 전화 작성(상시 작성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작성



2024 선교 보고

☎ 02)3215-3616 선교헌금 문의

|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방법 |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CMS) :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신규 작성란〉작성
- ③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변경 작성란〉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현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